

포스트코로나 보험산업 대응 및 감독규제 방향에 대한 제언

2022. 02. 25.

이 창 욱

강사 소개



이창욱 박사

lcw8389@naver.com

- 실무경력
 -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2018-20)
 - 금융감독원 보험감리실장(2016-17)
- 강의경력
 - 보험연수원, 금융연수원, 계리학회, 보험학회, 리스크관리학회, 경희대, 성대 등
- 학력 및 기타
 - 연세대학교 행정학 학사(1988)
 - 연세대학교 경제학 석사(1997)
 - 미국 미시간주립대학교 금융학 석사(2007)
 - 한양대학교 경영학 박사(2015)
 - 미국 캘리포니아 보험감독청 근무(2011)

● 발표 순서

- I 최근 금융 및 보험 환경 변화
- II 그간 보험산업 및 금융당국의 문제점
- III 포스트코로나 보험산업 변화 및 대응
- IV 포스트코로나 보험감독규제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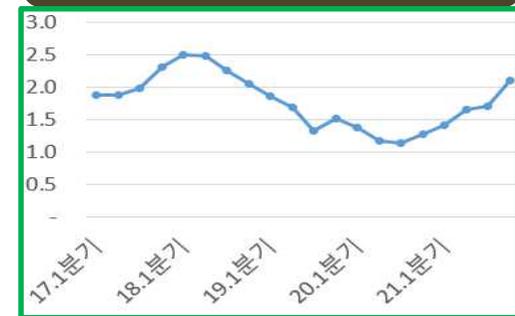
I. 최근 금융 및 보험환경 변화

1. 거시경제적 측면

(1)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 기조에서 상승추세로 반전

- 미 Fed의 **테이퍼링** 등 전세계적으로 **정책금리 인상**에 속도 → 각국 통화정책 및 경제상황 등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금리의 **V자형 상승 반전**이 시작
- 금리인상으로 채권 자산운용 중심의 국내 보험회사의 자기자본 감소로 **지급여력비율 하락 우려**도 있는 반면, 금리 인상으로 부진했던 **자산운용수익률 상승 기대**

국고채 5년물 금리 추이(%)



(2) 가계부채, 구조조정 등 불확실성 증대

- '14년 이후 **가계부채가 급속히 증가**하였으나, 그간 저금리 지속으로 소비자의 상환부담으로 이어지지 않았음
- 그러나 향후 **금리가 지속 상승**할 경우 서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연체율 상승**으로 이어질 개연성
- 부실한 기업(대우조선해양, 쌍용자동차 등)의 구조조정 지연이 경제 불확실성 증가 → **투자제한, 소비위축** 가능성

가계대출 잔액 추이(조원)



I. 최근 금융 및 보험환경 변화

1. 거시경제적 측면

(3) 저출산 고령화 가속화

- 국내 인구 **고령화**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중
 →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에 따른 부양능력 상실
 → 저출산, 고령화 악순환 반복
- **장수리스크**로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재정부담 등 **공적보험의 한계** 도달 → 사회 안전망으로서 **민영보험 역할 증대**

고령화→초고령화 진입기간

한국	26년
프랑스	154년
미국	89년
독일	76년
일본	36년

(4) 제4차 산업혁명시대 진행

-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나노기술 등 **IT기술 혁신**이 금융산업에 **기회** 및 **위협**을 가져옴
- 보험과 IT가 결합된 **인슈어테크**는 조만간 새로운 유형의 비즈니스, 상품, 영업방식 등 **보험산업에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

사물인터넷

다양한 사물(가전제품 등)을 인터넷으로 연결하여 정보를 주고 받는 기술



빅데이터



대규모 데이터(자율차운행 정보 등)를 가공·분석하여 활용하는 기술

인공지능

인간의 학습·추론·지각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실현하는 기술



I. 최근 금융 및 보험환경 변화

2. 보험산업 측면

(1) 보험국제회계기준 및 신지급여력제도 준비

- '23년 보험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시 보험부채 평가 기준 변경(원가→시가)으로 **보험부채 적립부담이 크게 증가**
- **수익과 비용**(사업비) 인식 방식의 변화로 기존 신계약 중심의 **경영방식**에도 근본적인 **변화** 예상

보험판 IMF?... IFRS 괴물이 다가온다

"생보사들, 2020년까지 42조원 추가 적립해야... 퇴출줄 이을 것" 공포

IFRS 개정안 시행 때 생보사 자본 35조 급감

RBC 286%→115%로 추락...절반이 퇴출위기

보험사 역대 최대순익? IFRS로 보면 '착시'

IFRS 2단계 시행시 생보사 절반 가량이 퇴출대상

가용자본 60% 증발, 최악의 경우 평균 RBC는 286→89%로 급하락

(2) 국내보험시장 포화로 인한 성장성 둔화

- 가구당 보험가입률이 98%에 이르는 등 국내 **보험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
→ 신규 보험가입 수요창출이 곤란
- '11~'15년 중 보험산업은 연평균 7.3% 성장하였으나, '16~'20년 중에는 성장률이 **2.0%로 급감**

가구당 보험가입률(%)



보험산업 연평균 성장률(%)
(수입보험료 기준)



I. 최근 금융 및 보험환경 변화

2. 보험산업 측면

(3) 금융업종간 경쟁심화

- 금융권역간 겸업화 추세 등에 따라 동일 업종은 물론 다른 업종의 금융회사간 경쟁도 치열하고, 플랫폼의 등장으로 금융산업내 경쟁이 더욱 가속화됨
- 소비자의 복합금융서비스 등에 대한 요구가 다양화되면서 이에 대응한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이 긴요할 전망

4차산업, 플랫폼 등장

- ▶ AI·빅데이터 기술
- ▶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



(4) 소비자 권리의식 강화

- 인터넷 등의 발달로 인한 정보접근의 용이성으로 소비자 권리의식이 지속 강화 추세 → 소비자 교섭능력 제고로 보험료 인하, 서비스 개선 등에 대한 소비자 요구 증가
- '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상품판매 6대 원칙 규제, 위법 계약해지권 신설로 소비자보호주의는 계속 강조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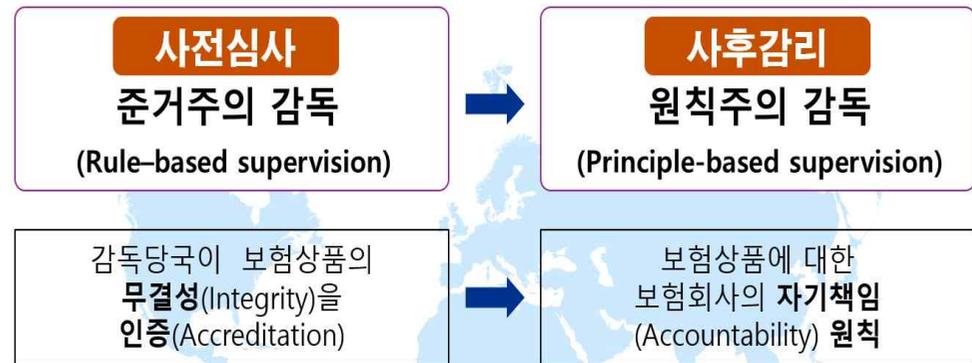


I. 최근 금융 및 보험환경 변화

2. 보험산업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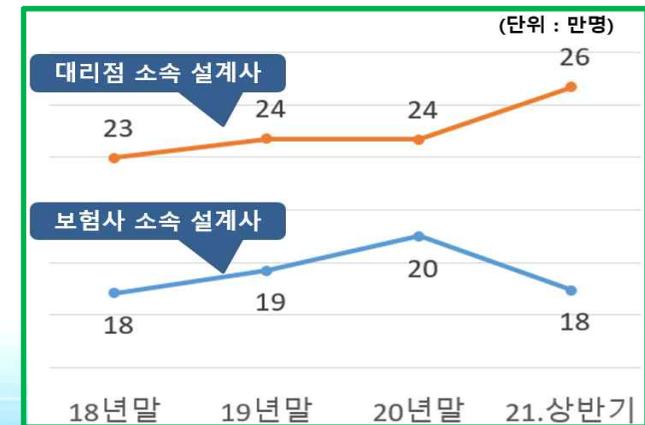
(5) 상품개발 자율성 확대

- 정책성 보험을 제외한 상품신고의무가 대부분 폐지되고, 보험료(위험률) 할증 한도 폐지 등 **가격규제도 완화**(‘16년)
- 상품 개발 및 가격 결정의 자율성이 확대되어 과거 양적 경쟁 이외에 **질적 경쟁도 가속화**



(6) 대형 판매채널 중심으로 상품개발 및 판매 분리

- GA(General Agency)로 불리는 **대형법인보험대리점**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면서 핵심 보험판매채널로 정착하고, 방카슈랑스 등 금융기관 판매채널 비중도 증가
- 이로 인해 **보험회사 전속설계사**의 비중이 다소 **감소**하는 등 상품개발과 판매의 분리가 가속화되는 추세



● 발표 순서

- I 최근 금융 및 보험 환경 변화
- II 그간 보험산업 및 금융당국의 문제점
- III 포스트코로나 보험산업 변화 및 대응
- IV 포스트코로나 보험감독규제 방향

II. 그간 보험산업 및 금융당국의 문제점

1. 환경변화에 대한 보험회사의 대응 미흡

(1)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 부족

- 해외는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을 활용한 보험상품을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미온적**
- 금융당국은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금융 혁신을 지원하고 있으나, 해당 업권별 법규, 소비자보호 등 **제약이 많은 실정**

(2) 금융겸업화에 대한 대응 부재

- 복합금융 점포 등 금융겸업화의 진전으로 보험회사의 **입지가 축소**
- 타 업권은 종합자산관리서비스나 초대형 IB 출범을 활발히 추진하나, 보험업계는 신시장 보다는 **現보험시장내 경쟁에만 몰두**

(3) 저출산, 고령화 변화 대응 미흡

- 노령인구에 대한 의료비 및 부양비 지출 증가 등 신규 보험수요에 대한 **건강보험 등 신상품 개발 부족**
- 장수리스크의 관리체계 및 건강, 간병 보험의 언더라이팅, 요양서비스, 의료비 **심사 인프라 부족**

(4) 금리역마진 대응 미흡

-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 등으로 투자환경이 악화되고, 과거 판매한 고금리 상품으로 **금리역마진 부담이 여전히 상존**
- ALM 관점에서 자산·부채의 합리적 관리 부족으로 금리역마진에 대한 대응 미숙 → 금리역마진 상품에 대한 **부실화 우려**

II. 그간 보험산업 및 금융당국의 문제점

2. 지속 성장을 위한 경쟁력 부족

(1) 경쟁력 있는 신상품 개발 부족

- 신규 보험가입 수요 창출할 수 있는 혁신 상품 개발 노력 부족 → 타사와 **차별 없는 상품**(me-too 제품)의 빈번한 출시
- 손해보험의 경우 일반보험 비중이 낮고, 장기손보, 자동차보험 등 **제한된 시장**에서 **가격경쟁**에만 치중

(2) 소비자 서비스 경쟁력 미흡

- 타 금융상품과 달리 보험은 초장기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가입 유인 노력에 비해 **판매후 사후관리가 미흡**
- **변액보험**의 경우 펀드 추천, 변경 등 사후적 수익률 관리가 미흡하고 고객을 **'이미 잡은 고기'**로 간주하는 경향

(3) 자산운용 능력 취약

- 보험부채의 장기성에 맞는 자산운용체계 개발이 미흡하고, 안정적 대체투자를 위한 **자산운용 전문인력도 부족**
- 일부 회사는 대체투자에서 리스크 분석이 미흡하여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는 등 **자산운용 관리능력이 취약**한 실정

(4) 해외시장 미개척으로 성장에 한계

- 국내의 보험잠재 수요 감소 등으로 해외 시장 진출을 통한 성장 모색이 필요하나 국내 보험사의 **해외진출은 초보적 수준**
- 해외진출의 대부분도 해외 시장 공략을 위한 교두보 마련 차원에 머무는 실정이며, 실질적인 **이익창출은 미흡**

II. 그간 보험산업 및 금융당국의 문제점

3. 보험산업에 대한 낮은 신뢰도

(1) 보험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저하

-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등으로 '보험은 가입하기는 쉬우나 보험금은 받기 어렵다'는 인식이 팽배 → **국민의 신뢰 저하**
- 실제 소비자불만 증가에 따라 보험민원이 지속 증가하여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 중 보험이 60% 이상** 차지(63.7%)

(3) 보험사기 등으로 부정적 이미지

- 거액을 노린 **보험사기**가 언론에 노출됨으로써 보험이 **부정적** 모습으로 투영
- 보험가입 유도를 위한 허위, 과장설명, 부당승환, 리베이트 제공 등 문란행위 지속으로 이미지 추락 → **보험신뢰도 저하**

(2) 낮은 유지율로 본연의 기능 상실

- 연고모집, 밀어내기식 영업으로 계약초기 대량해지로 인해 **장기 유지율이 저조한** 실정(보험계약 7년 유지율 24.3%)
- 대다수 소비자는 해약공제 등 금전적 손실만 부담하여 불만 팽배 → 장기유지 효용을 얻는 **순기능 기대 곤란**

25회차(2년) 보험계약 유지율(%)



II. 그간 보험산업 및 금융당국의 문제점

4. 기존의 형식, 과거, 부분에 치중한 감독(검사)

(1) 환경변화에 대응이 부족한 감독

-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영업방식으로 변화를 도모하나, 대면영업 위주의 규제가 **비대면 영업전환을 제한**
- 빅테크의 출현, **제4차 산업혁명**으로 보험산업을 둘러싼 환경은 급변하고 있으나, **감독법규는 20년 전과 대동소이**

(3) 공시, 내부통제 기능 미흡

- 보험회사 경영환경 다양화, 복잡화로 감독당국에 의한 **외부 통제는 한계**
- 시장 규율을 위한 각종 **비교공시 정보의 확대가 요구됨**
- 이사회, 경영진의 내부통제 및 자체감사 등에 대한 **책임인식이 부족한 실정**

(2) 사후적 제재위주의 검사 관행

- 금융시장의 대형화, 디지털화에 따라 리스크 중심 **사전적 감독이 중요**하나 아직 **사후 제재중심의 검사에 치중**
- 개별적 위규사항에 대한 지적위주 검사 실시로 취약분야 개선에 한계 → 불완전 판매 등 **고질적 위규 반복**
- 검사처리 과정에서 보험회사와 소통 및 투명성 부족으로 보험회사가 행정소송 제기 → **검사의 수용도 저하**

● 발표 순서

- I 최근 금융 및 보험 환경 변화
- II 그간 보험산업 및 금융당국의 문제점
- III 포스트코로나 보험산업 변화 및 대응
- IV 포스트코로나 보험감독규제 방향

III. 포스트코로나 보험산업 변화 및 대응

1. 디지털 전환 : 보험산업 영역별 인슈어테크 도입

(1) 새로운 보험 수요 발생

1) 생활양식·환경 변화로 새로운 보험 수요 발생

- 헬스케어서비스·비대면 의료 등 새로운 의료이용 형태 등에 대한 보장수요 발생
- 실손 등 기존상품 대신 개인 맞춤형, 여행자보험 등 신상품으로 시장 전환
- 밀레니얼 세대에 적합한 미니보험 활성화

2) 의료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개인 맞춤형 상품 개발

- 심평원의 공공의료 빅데이터의 보험사 활용 추진 등 → 유병자·고령자 신상품 개발에 활용하고,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가능
- 심평원 자료는 활용이 가능해졌으나, 건보공단은 자료 제공 거절중

3) 자동차 공유 서비스 확산 등에 대한 맞춤형 보험상품 개발

- 공유차량 이용에 대한 초단기(한시간 단위) 보험상품 등 개발
- 차량 운행량 등 개인운전 형태에 맞춘 합리적 보험료 지출 수요에 따른 이용량 기반의 보험료 산출 및 보상 서비스 등의 차별화 전략 모색

<해외사례 : 미국>

공유차량 운전자 보험 : Uber에서 제공하는 보험은 최소 수준만 담보하기 때문에 추가보장 수요 증가

Ⅲ. 포스트코로나 보험산업 변화 및 대응

1. 디지털 전환 : 보험산업 영역별 인슈어테크 도입

(1) 새로운 보험 수요 발생

4) 데이터경제 가속화에 따른 정보유출 등 신규 리스크 보장 강화

- (정보보안) 사이버보험 의무화 확대, 피싱 보험 및 AI·IoT 정보기기 **해킹 보험 활성화**
- (新산업 위험 보장) **5G+ 기반 新산업**(스마트시티/팩토리, 웨어러블 디바이스, 드론·로봇 등)에 대한 **배상책임 의무가입** 및 정책성보험 도입 등

※ 사업용 드론에 대한 보험가입 의무화('17.3), 공공용 드론에 대한 보험가입 의무화 완료('20.12)

5) 라이프스타일 변화(언택트)에 따른 모빌리티 보험 등의 신상품 출시

- PM(공유서비스·개인소유) 보장수요 대응을 위한 **PM보험 활성화** 추진(지자체 자전거 보험 확대·적용 등)
- 민·관 협의체 구성을 통한 공유사업자 PM보험 표준안 마련 및 우선 적용('21.11)
-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국회 계류중

<해외사례 : 독일>

- ① 알리안츠 : 자전거, 세그웨이, 전동킥보드 등 배상책임, 자차손해, 자기신체상해 보험 판매
- ② Zurich : 세그웨이의 도난, 탑승 중 내부손상, 오작동 파손 등 보상

Ⅲ. 포스트코로나 보험산업 변화 및 대응

1. 디지털 전환 : 보험산업 영역별 인슈어테크 도입

(2) 보험회사의 서비스 업무 확대

1) 보험사의 서비스 범위 확대로 보험가입자의 건강관리 제고

- 복지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개정
 - ① 다수의 전문의(명의), 의료기관 추천 및 예약 서비스
 - ② AI 활용한 '질병 발병 위험도 서비스'

2) 국가가 지원하는 중소기업 건강 프로그램(임직원 대상) 도입

- **헬스케어서비스**의 가입자 **대상 확대**(개인보험 → 단체보험) 및 건강관리 추진

<해외사례>

- ① 미국 : 기업의 건강프로그램 지출 비용의 절반 세액 공제
- ② 일본 : 건강경영 우량법인 인증제도 통해 우수 기업 선정, 사업자금 대출시 금리우대 등 혜택 제공

3) 간병 서비스 등 물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 확대

- 보험사고시 현금 지급 외에 사고수습 등을 위한 **서비스 재활기기** 등 지원

<해외사례 : 일본>

다이이치생명 : AI 치매예방앱을 통한 인지능력 감퇴 통제, 응급상황시 보안업체 출동, 보험금 대리청구 등

Ⅲ. 포스트코로나 보험산업 변화 및 대응

1. 디지털 전환 : 보험산업 영역별 이슈어택 도입

(3) 신기술을 활용한 업무프로세스 개선

1) 가입자 관련 빅데이터(SNS 이용기록, 신용점수 등)를 언더라이팅에 활용

- 고지사항 진위, 고위험군 여부 등 관련 빅데이터를 언더라이팅에 활용 필요 → 보험업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 정비 및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해외사례 : 미국>

- ① 뉴욕 금융당국은 생명보험료 산정시 인스타그램 등의 SNS정보 등을 활용 허용 및 가이드라인을 발표('19.1월)
- ② Carpe Data社 언더라이팅 적용방식 : 소셜 및 공공정보로 가입 신청자의 신뢰도를 측정 → 고지사항 진위여부 확인 → 추가적 언더라이팅 필요여부 판단

2) 실손 보험금 청구절차에 대한 디지털화 추진

- 의료기관이 환자의 진료비 영수증 등을 환자가 원하는 제3자(보험사 등)에 전송토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환자의 진료비 결제에서 실손보험금 수령까지 **소과정의 비대면·디지털화** 추진

Ⅲ. 포스트코로나 보험산업 변화 및 대응

1. 디지털 전환 : 보험산업 영역별 인슈어테크 도입

(3) 신기술을 활용한 업무프로세스 개선

3) AI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손해사정 및 보상시스템 도입

- (人) **경미사고** 환자의 표준치료가이드 개발 및 상용화
- (物) 경미사고에 대한 **인공지능 손해사정 시스템(AOS알파)** 상용화 추진중
- (人·物) **AI 활용한 사고 접수 및 조사**(차량 위치 등 사고정보 자동보고 및 블랙박스 영상을 활용한 사고분석)

<해외사례 : 일본>

- ① (미쓰이스미토모) 블랙박스 할인특약 가입자 대상으로 관련 서비스 제공('20년 상반기)
- ② (동경해상) 사진을 통해 사고차량 피해 분석 및 필요한 수리범위 등을 파악하는 AI 솔루션 개발

4)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보험사기 적발 시스템 업그레이드

- 전체 평균 보험금 대비 과다청구 사례, 지역별·성별 보험사기 혐의자 분포 등 **신정원 빅데이터(가명정보)** 활용으로 **보험사기 적발 시스템 업그레이드**(22.하반기 시행 예정)
- 블로그, 트위터, 유튜브 등의 데이터 분석(웹크롤링)으로 통한 보험사기 사전 차단
 - 보험사기 관련 키워드(ex. 코성형, 실비)로 연관 검색어, 게시글 내용 등의 데이터를 통해 문제병원 등의 정보 확인(KB손보 시행중)

III. 포스트코로나 보험산업 변화 및 대응

1. 디지털 전환 : 보험산업 영역별 이슈어택 도입

(4) 언택트 트렌드로 인한 비대면 영업 확대

1) 모바일 상품 설명 허용 및 청약절차 간소화

- **상품 설명시** 대면방식 외에 **모바일 방식 허용**, 모바일 청약시 일괄서명 방식 허용
⇒ 금소법 감독규정 반영으로 완료(21.3.25)
- TM 계약시 청약서의 **일반전자서명 활용 확대**
⇒ 기존 공인전자서명(매년 갱신)을 일반전자서명으로 대체하여 가입 편의성 제고
- 타인의 사망보험 계약시 **비대면 방식 신분확인 허용**
⇒ (상법) 타인의 사망담보 계약체결시 피보험자 대면 신분확인 후 서면동의(전자서명 포함) 징구토록 규정
- TM 채널 **AI 음성봇** 도입 완료

<해외사례>

- ① 중국 : 최근 온라인 보험판매 급증으로 다수의 보험사 디지털화 추진 중
- ② 영국 : AON, 로이즈 및 국제언더라이팅협회와 e-거래 도입

Ⅲ. 포스트코로나 보험산업 변화 및 대응

1. 디지털 전환 : 보험산업 영역별 인슈어테크 도입

(4) 언택트 트렌드로 인한 비대면 영업 확대

2) 대면조직의 언택트 영업 지원을 위한 Hybrid형 영업방식 도입

- 설계사의 상품 권유 후 실제 청약 및 계약 체결은 **TM**이나 **모바일 방식 활용** 등(현재는 채널별로 영업방식 규정이 존재하여 혼용이 불가) ⇒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3) 미니보험 및 소액 단일보장 상품 등 비대면 판매가 용이한 전용상품 활성화

- 1,000원 이하의 운전자보험 및 레저보험(캐롯손보), 미니 암보험(미래에셋생명) 등

Ⅲ. 포스트코로나 보험산업 변화 및 대응

1. 디지털 전환 : 보험산업 영역별 인슈어테크 도입

(5) 소비자응대 프로세스의 디지털화

1)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보험금 청구시 필요한 서류 준비 간소화

- 현재 화재보험 가입시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등기부등본 조회
⇒ (추진방향) 공공 마이데이터 도입으로 보험계약 및 보험금 청구시 필요한 서류 확인

<해외사례 : 홍콩>

디지털 생보사 Blue : 전면 디지털화 통해 상품 및 가입절차 단순화, 無수수료, 상품변경 유연화

2) AI 등을 활용한 상담 프로세스 확대로 신속한 소비자 응대 추진

- 빅데이터 기반 메신저 시스템. 반복·단순 질문 답변 챗봇, 음성지원 AI 상담 프로세스 도입 등(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완료)

3)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과실비율 예측 시스템 구축

- 과실비율 인정기준 어플리케이션(앱) 고도화 등을 통하여 과실비율에 대한 정확한 소비자 안내 추진

III. 포스트코로나 보험산업 변화 및 대응

2. 보험의 사회적 역할 증대

(1) 대형재난, 재해, 질병에 대비한 공보험 보완할 수 있는 민영보험 확대필요

- 일부 지자체 운영중인 "시민안전보험*"을 감염병 등 거대재난을 보장하는 "국민안전보험"으로 확대 개편하거나 다수 보험사의 공동인수방안을 추진할 필요

* 지자체별 보장편차 해소를 위한 시민안전보험 담보 표준안 마련 및 지자체 가입 권고 완료(행안부, '21.5)

<해외사례>

- ① 프랑스 : 보험협회와 국영 재보험사(CCR)는 팬데믹 보장 방안을 모색하고자 워킹그룹 구성
- ② 독일 : 보험협회(GDV)는 미래 팬데믹 사태에 대비한 보험제도 구축을 목적으로 워킹그룹 운영
- ③ 영국 : 팬데믹위험 보험 풀 추진을 위한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가 구성됨

(2) 고령화에 대비 장기 간병, 요양서비스, 상조서비스 등 활성화

-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에 대한 **간병 서비스**, 재활기기 등 물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 확대
- 요양시장의 확대에 맞추어 **장기간병, 요양서비스 등 확대**(비용효율화 위해 공사협력, 폐교 등 유휴시설 활용검토)

<해외사례 : 일본>

다이이치생명: AI 치매예방앱을 통한 인지능력 감퇴 통제, 응급상황시 보안업체 출동서비스, 보험금 대리청구 등

Ⅲ. 포스트코로나 보험산업 변화 및 대응

2. 보험의 사회적 역할 증대

(3) 사적연금 역할 확대

- 저소득층의 고령가구 빈곤문제 해소 위해 중장기적으로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하는 **한국형 리스터연금제도** 도입필요
- 연금저축 장기유지 위해 장기연금저축 수수료율 인하, 장기 연금수령자에 수수료 인하, **장기유지자 연금세율 인하** 필요
- 은퇴 직전자가 보유자산을 연금화하도록 연금납입액에 소득공제혜택 추가 부여하는 **미국식 캐치업제도** 도입필요
- 소득단절기간(CREVASSE)에 대비한 신종연금상품 도입 및 기존 연금상품 퇴직시점에 연금수령 가능한 **리모델링 특약 개발** 필요

III. 포스트코로나 보험산업 변화 및 대응

3. 테크기업의 보험업(보험대리점) 진출 증가

- 카카오, 네이버 등 **빅테크 기업** 외에 테크기업들이 본격적으로 보험시장에 진출하고 있지 않으나 향후 방대한 정보력, 디지털유통망 등을 기반으로 투자, 사업제휴 등 다양한 형태를 통해 **보험관련 사업을 전개**할 것으로 전망
 - 카카오처럼 보험사업자 라이선스를 획득하거나 네이버처럼 네이버파이낸셜 **보험대리점** 등록을 하는 방안 또는 테크기업이 보험업 등을 직접하지 않는 대신, 첨단 ICT기술에 기반한 판매플랫폼을 구축하고 **기존 보험회사와 제휴**하여 플랫폼 **이용수수료 받는 전략**을 구사
- 보험사의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한 **종합생활금융플랫폼 구축** 등이 필요

빅테크란?

- 빅테크란 인터넷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금융시장에도 진출한 IT기업을 지칭
- 빅테크는 강력한 ICT 플랫폼을 보유해, 보유한 고객 데이터를 활용하여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 가능
- 최근 빅테크는 보험, 은행, 증권 등 다양한 금융산업 분야에 진출하여, 그 영향력을 키우고 있음
- (보험) 카카오페이, 네이버파이낸셜 등
- (은행)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



III. 포스트코로나 보험산업 변화 및 대응

4. 보험회사 ESG 경영도입 확산

ESG 경영도입 가속화

- 최근 EU와 미국을 중심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ESG 경영에 대한 투자 규모가 커지고 일부 국가에서는 관련 정보의 공시가 의무화
- **보험**은 상품의 특성과 투자의 장기성으로 인해 **ESG와 아주 밀접**하고 연관성이 매우 높은 산업이며, 기후 온난화 및 각종 재해에 대비하는 **재해보상보험 개발**이 필요
- 기업의 **ESG 성과를 보험료 산정**에도 반영하고, 경영 전반의 준칙과 평가에 ESG 요소를 반영하여 단기 성과주의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기여할 필요

ESG란?

-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의미하는 ESG는 기업의 가치, 이해관계자 가치, 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비재무적 요소임
- ESG는 2004년 UN Global Compact 보고서에서 처음 사용되었고, UN PRI를 계기로 그 개념이 확산
- 최근 기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과 자본시장에서의 ESG요소 영향력 확대, 관련 정부정책 변화로 인해 그 중요성이 커짐



● 발표 순서

- I 최근 금융 및 보험 환경 변화
- II 그간 보험산업 및 금융당국의 문제점
- III 포스트코로나 보험산업 변화 및 대응
- IV 포스트코로나 보험감독규제 방향**

IV. 포스트코로나 보험감독규제 방향

1. 기본 방향

(1) 보험제도 혁신 및 디지털화 촉진을 통해 보험역동성 제고

- 제4차 산업혁명, 신기술 혁신의 급진전 및 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부채 시가평가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보험산업 구조 변화에 맞는 보험감독 규제체계 정비
- 보험시장 경쟁촉진을 위한 보험회사 진입규제 개편 및 신상품 개·발가격책·정자산운용 자율성 확대

(2) 디지털 전환 리스크 대비 및 내부통제·시장규율 강화

- 디지털혁신 과정에서 경쟁심화로 인한 과도한 리스크를 초래하지 않도록 예상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장안정, 소비자 피해예방 차원에서 적정하게 대응
- 보험회사 건전성제고, 법규준수, 소비자보호 등 관점에서 보험회사들이 내부통제, 지배구조를 구축하고 경영전략을 수립하여 스스로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책임경영을 유도함과 동시에 공시강화 등 시장규율 확대

IV. 포스트코로나 보험감독규제 방향

2. 진입·퇴출제도 등 합리화 통해 보험산업 경쟁 촉진

(1) 진입 등 규제 선진화

- 인슈어테크 발전으로 혁신 아이디어 가진 전문보험회사가 진입 및 영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회사 상품, 리스크 특징, 규모, 복잡성 등을 감안한 **차별 규제환경 조성**
 - * 소액단기전문보험사에 대해 비례성 원칙을 적용하여 모집인자격, 인적 물적요건 등 완화
- 하나의 보험사가 특정 상품만 취급하는 별도의 보험사나 특정 고객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보험사 등 다양한 형태의 업체가 등장할 수 있도록 **1사 1 라이선스 정책 완화**

<해외사례>

- ① 미국 메트라이프: 지주사 아래 단체보험퇴직연금 중심 '메트라이프'와 반려동물 보험 전문 '펫 퍼스트', 재보험사 '알리코'
- ② 일본 니혼생명: '타이주생명(일반기업 및 임직원)', '웰스라이프(고소득층 개인 방카 전문)', '하나사쿠생명(젊은 연령층 대상)'

(2) 빅테크 기업과 기존 보험회사의 규제 공정성 제고

- **빅테크 기업**은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시스템리스크 전이 및 집중리스크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금융지주**가 받고 있는 **수준의 규제**로서 빅테크가 보험업 라이선스를 받게 하거나 빅테크그룹에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규제할 필요**

IV. 포스트코로나 보험감독규제 방향

2. 진입·퇴출제도 등 합리화 통해 보험산업 경쟁 촉진

(3) 생·손보 겸영제한 단계별 완화 -> 상품군 단위별로 인허가 정책 추진

- 생손보 겸영 제한도 최근 손해보험사들이 생명보험 성격의 장기손해보험을 60% 이상 판매하는 등 **겸영제한**의 규제 실익이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할 필요
- IFRS17 도입시 보험부채 시가평가를 통해 생손보 보험상품의 리스크를 정확히 측정하고 상품간 상관관계(correlation) 분석 및 리스크전이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거쳐 **생손보 겸영**을 통한 판매 **시너지 효과** 및 **글로벌 영업경쟁력 강화** 도모
- 동일한 보장범위의 보험상품(예, 실손보험, 암보험 등)임에도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참조위험률이 달라 생손보 상품간 보험료 차이가 발생하여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는 점도 고려

(4) 퇴출제도 합리적 정비

- IFRS17도입되면 보험계약의 공정가치가 이루어지고 계약이전이 객관적 평가 하에 이루어지므로 **부실보험사의 퇴출**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
- 임의계약 이전이 원활하도록 제도개선 추진하고 **전문 잔존계약(Run-off) 회사 허용** 필요

IV. 포스트코로나 보험감독규제 방향

3. 업무위탁 활성화 및 자회사 소유·부수업무확대 통한 보험산업 성장성제고

(1)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업무 위·수탁 활성화

- 보험업법에 보험사 위탁 및 수탁에 관한 내용과 위임근거 명시하고, 하위법령에 구체적인 위·수탁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법체계 정비
- 보험사의 본질적 업무를 검토하여 반드시 본사 내에서 수행해야만 하는 업무를 핵심업무로 축소하여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인허가 제도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업무위탁 허용범위를 넓힐 필요 (small tech 기업들의 소액보험금 간이심사 수탁, 손해사정수탁 등)
- 다만 업무위탁에 따른 보험사의 관리 책임강화 방안 마련 필요

(2) 보험역할 확대를 위한 자회사 소유 및 부수업무 확대

- 자산운용과 헬스케어 활성화 등이 가능하도록 보험사 자회사 소유와 부수업무 영위를 폭넓게 허용
- 보험이 플랫폼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 범위확대 필요

IV. 포스트코로나 보험감독규제 방향

4. 보험회사 리스크 수준에 따른 차별화된 재무건전성 감독

(1) 소액전문보험사에 대한 재무건전성 규제 완화

- 2023년부터 새로운 지급여력제도 K-ICS를 모든 보험사들이 적용받되, **유예기간** 10년 적용 여부를 보험회사들이 선택하도록 하여 **규제의 수용성 제고**
- 다만 **소액단기전문보험사**들은 리스크 규모 등 보험시장 내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음을 고려하여 EU의 Solvency I 과 같은 다소 **완화된 규제를 적용할 필요**
- 아울러 새로운 국제회계기준도 비상장회사 등에 대해 적용하지 않은 점을 감안, 소액단기 전문보험사에 대해 IFRS17 대신 **종전 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

(2) 디지털 대비 리스크관리강화

- 빅테크 기업의 시장 잠식, 정보 집중 가능성에 따른 **집중리스크, 시스템리스크** 사전예방
- 데이터 보안, 개인 정보보호, 자금세탁방지, 사이버 범죄 예방 및 **고객보호** 관련 제반 **리스크 관리 강화**

IV. 포스트코로나 보험감독규제 방향

5.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및 소비자보호 위한 영업행위 규제체계 조정

(1) 언택트 트렌드에 맞추어 소비자 편익증진을 위한 영업규제 정비

- 소비자보호와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위해 적절한 규율감독을 받되, 소비자만족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개발촉진
- TM, CM 등 비대면채널에 대해 AI 음성봇 등 디지털자료 활용한 설명의무 이행허용(규정 반영)
- 소비자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운영기준 마련을 전제로 화상통화를 통한 보험모집 필요
- 모바일 모집절차 전면 활용(규제샌드박스), 표준스크립트 분량 축소 등도 검토
- 고령층을 위한 자녀들의 모바일 보험금 대리 청구 서비스 도입 등

(2) 보험상품 사업비 및 보험계약 유지율 공시강화

- 보장성 상품 사업비 및 보험계약 유지율 정보공시 강화를 통해 시장규율을 통한 보험산업 신뢰회복과 보험사의 건전한 경영을 유인할 필요
- 보험계약 유지율과 보험사 재무·비재무 지표와의 관련성 분석을 통해 해당 지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회사간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객관적 기준 마련이 필요

IV. 포스트코로나 보험감독규제 방향

6. 리스크 중심의 감독·검사 체계 구축

(1) 감독·검사 방식의 체계화·정교화

- 금융기술 발전에 따른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 및 대응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한편 **포스트코로나시대의 종합적 감독·검사체계 정립**할 필요
- 규제관련 보고체계 및 내부통제 체계 등의 투명성, 효율성과 효과성을 보다 높일 수 있는 **렉테크(RecTech)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
- 데이터 집계, 시나리오분석 등 감독, 검사업무 수행시에도 렉테크 활용하여 효율성 높이는 방안 모색
-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금융환경에 대응하여 보험사 스스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개발하고 **효과적인 리스크관리와 적절한 지배구조**를 갖추도록 유도
- 보험사의 위험규모와 자율적 관리능력을 밀착 상시감시를 통해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고위험 부문에 감독·검사 자원을 우선 할당하여 필요한 **선제적 예방조치**
- **보험시장과 소통 확대** 등 정보교류 활성화하여 상시 감시기능을 보완

(2) 보험회사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지배구조 등 ESG 관련 공시강화 유도

- 감독당국은 소비자 등이 보험사 위험관리 수준 등을 감시할 수 있도록 보험사의 적절한 **위험관리 정보 및 ESG** 관련사항을 시장에 **적시 공시**하도록 **자율규제 강화 유도**

참고 문헌

- ① 금융감독원(2020.12), "글로벌 핀테크 트렌드 및 감독정책"
- ② 금융감독원(2017.3), " 금융부문 제4차 산업혁명 동향과 향후 대응방안 "
- ③ 금융감독원(2020.9), "디지털화가 보험산업 가치사슬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 ④ 금융감독원(2022.2), "2022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 ⑤ 금융위원회(2021.3), "보험산업 신뢰와 혁신을 위한 정책방향(21년 보험산업 금융위 업무계획)"
- ⑥ 금융위원회(2021.12),"2022 정부 업무보고 :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
- ⑦ 김석영,오승연(2017.9), "전문보험회사 활성화를 위한 진입규제개선의 필요성",보험연구원
- ⑧ 김영도,이상제(2008.11), "원칙중심 감독 도입방안",한국금융연구원
- ⑨ 김재현,이석호(2021.1), "한국금융산업의 2030비전과 과제 : 보험산업", 금융연구원
- ⑩ 김진억(2017.5), "인슈어테크 발전과 감독 이슈", 보험연구원
- ⑪ 김해식(2021.10), "2022년 보험산업 과제", 보험연구원
- ⑫ 김헌수(2021.3), "보험산업 지속 가능한가",보험연구원
- ⑬ 보험연구원(2021.12), "보험산업 정책 제언 "
- ⑭ 서정호,이병윤(2020.11), "한국금융산업의 2030 비전과 과제 : 은행", 금융연구원
- ⑮ 심준식(2020.7), "Digital Transformation",삼정 KPMG
- ⑯ 안철경(2021.10), "보험산업의 사회적 역할과 과제", 보험연구원
- ⑰ 이창욱(2018.7), "인슈테크, 보험산업의 혁신과 보험감독", 금융감독원
- ⑱ 정원석,김석영,정인영(2019.12), "비대면채널 활용을 위한 규제 개선방안"
- ⑲ 황인창(2021.10), "디지털 환경변화에 따른 금융규제 방향",보험연구원

감사합니다

